

문화특집

# 내장산국립공원 관광화 '순항'

## 총 99억 5천만원 투입... 조선왕조실록보존터인 용굴암 탐방로 개설 등 완료

부안서림지구대, 이장 대상

경찰 현안업무 대대적 홍보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9일 동진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 48명의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수확철 농산물 절도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날 이장단 회의에서는 수확철 치수는 무·배추 값으로 인한 민생침해 범죄가 빈번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위방비 생활화 및 이륜차·농기계를 운행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 야간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분의 피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앰프방송 등 이 장님들의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종삼 지구대장은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및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직원들이 전력, 안전하고 행복한 부안민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위촉식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대만)에서는 지난 9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

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협의체는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보건소에서 기획하는 건강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니터링 협의체 위원에는 김제시 이·동장협의회 대표를 비롯하여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건강증진사업 전문 모니터링을 위해 김제시의사회회 대표로 김기범내과원장도 참여하였다.

이날 위촉장 수여 후 모니터링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원광보건대학 간호학과 교수의 교육과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 행사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에서 9일 오전 '제5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그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외부 내빈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안전관리자 및 유관기관·단체 유공자 등 43명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 도지사, 소방서장, 한국화재보험협회장, 전라북도교육감 등의 표창과 부상이 수여됐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성덕면 기관·사회단체장 발족

김제시 성덕면은 9일 '사람, 지역, 나눔이 아름다운 성덕! Happy Together'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의 기관단체장과 사회단체장들 20명이 참석하여 공동체적 역량 결집을 목표로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그동안 성덕면 7개 기관장 모임을 운영해 왔으나 관내 사회단체장과의 공식적인 공유와 상호교류는 전무하여 이번 협의회 발족을 기점으로 지역발전의 다양한 의견교환 및 협력방안 마련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금대의 활동상황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추진배경 설명, 회원소개, 시정홍보자료 공유 및 향후 협의회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지평선중고등학교 정미자 교장은 "사람, 지역, 나눔이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세계철 체류 관광지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전북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한 토발 관광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99억5천만원(도비15,000, 시비4,950)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지난 2014년 11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8월 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내장산국립공원 백년대계사업과 내장산국민여가 캠프장 기능 보강 사업 등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14억원(도비 10억원, 시비 4억)을 투입해 추진 중으로 공원 내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장산문화관광 등 주변에 추진 중인 스토리트나 사진 찍기 명소 조성 사업 등 일부는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된 사업을 보면 먼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보존터인 용굴암 터의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이 곳은 그간 낙석 위험 등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등을 통해 낙석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와 천연목재 계단 데크를 설치했다.

시는 또 내장산 자연경관을 훼손시



정읍시가 세계철 체류 관광지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전북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전북을 단일 관광지로 연계한 토발 관광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키고 있는 일주문~내장사간 시리부설 도로와 철재 교량을 친환경 황토로 포장해 탐방객 등의 보행 편의를 꾀하고, 내장사를 비롯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아치형 석재 교량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우화정 화장실도 재건축했다. 지난 1977년 신축된 우화정 화장실은 노후화돼 탐방객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은 "기존 관광 자원의 여건과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고 특화된 거점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공원 내 시행할 도로와 철재 교량을 친환경 황토로 포장해 탐방객 등의 보행 편의를 꾀하고, 내장사를 비롯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아치형 석재 교량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우화정 화장실도 재건축했다. 지난 1977년 신축된 우화정 화장실은 노후화돼 탐방객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했다.

김생기 시장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천혜의 관광 자원이 내장산 국립공원과 85%의 분양을 보인 내장산비즈트 관광지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 세계철 관광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제9기 정읍단풍미인대학 졸업식이 500여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 정읍단풍미인대학 졸업식 가져

제2청사 대강당서 500여명 참석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제9기 정읍단풍미인대학 졸업식이 500여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정민철(덕천면) 씨가 최우수상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았고, 이창진(고부면)씨와 이인수(산내면)씨가 정읍시장상의 수상했다.

졸업사에서 김생기 시장은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교육과정을 마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읍단풍미인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 농촌을 선도하고 정읍농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단풍미인대학은 올해 9기까지 총 19개 과정이 운영 됐고, 모두 54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읍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공식 브랜드인 '단풍미인'이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지역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유통망개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평

가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단풍미인대학은 친환경유기농업과와 SNS마케팅과, 농산물가공창업과 3개 과정이 운영됐다.

친환경유기농업과는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이론과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등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됐고, SNS마케팅과는 마케팅 전략과 블로그 활용 등 SNS를 활용하여 현업에 적용해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또 농산물가공창업과는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상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습 등 6차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교월동, 올해 건조벼 추곡수매 시작

특등에서 3등까지 매겨 지급

김제시 교월동주민센터(동장 김태한)는 지난 8일 관내 명덕동 소산창고에서 2016년 첫 추곡수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올해 첫 수매에 비로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행스럽게 새벽부터 비가

또한 건조벼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분 함량이 13~15%로 맞춰져야 수매가 가능함을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에서는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한 교월동장은 "해년에 비해 시장격리미곡이 보름 정도 빨리 풀리기 배정되었던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수매하게 되어 농가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날씨가 도워져서 일정대로 차질이 수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올해도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 인기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으로 레이저 쇼 등 볼거리 제공

정읍시가 올해도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분수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화려한 분수 공연을 선보였다"며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새롭고 멋진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 해 공연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음악 분수곡 68곡을 배경으로 시원하고 화려한 분수 쇼를 선사했다.

성인들을 위해 카라와 소녀시대, 조용필, 마야 등이 부른 대중가요와 어린이를 위한 로보 태권V와 뽀야송, 돌리 등 민화곡, 그리고 비발디 등의 클래식, OST, 팝송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곡해 관객들의 즐거움을 더해졌다.

시에 따르면 공연은 4월 2일 시합

가동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운영됐다. 평일 저녁에는 8시와 9시 2차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후 2시, 5시, 8시 9시 등 모두 4차례씩 운영됐다. 특히 야간 공연 시에는 화려한 조명과 워터 스크린을 이용한 DVD 동영상과 레이저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해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음악분수 공연 외에도 워터파크 내 야외 공연장에서는 올 한 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38회에 걸친 공연도 펼쳐져서 일대가 여가와 레저를 함께 즐기는 명소가 자리매김 됐음을 반영했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도 음악분수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해 무척 기쁘다"며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내년도 더 알차고 멋진 음악분수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위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간섭전류치료기 등 4종 도입

부안군 보건소가 놓여준 의료취약지역인 위도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신행치료기 4종을 물리치료실에 설치 운영. 관절염과 만성 퇴행성 질환에 고생하는 2천여 주민들의 관절건강의 파수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국·도비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위도보건지소 리노우와 함께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도면은 도서지역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어촌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 바닷가에서 조개 채취 등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관절염과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물리

치료실 설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군 보건소는 위도보건지소에 물리치료를 신규 배치하고 간섭전류치료기 등 최신행치료기 4종을 도입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이 개인별 맞춤형 통증치료를 제공해 비만과 습기가 많은 섬지역 특성상 관절건강이 우려 되는 겨울철에 악화할 수 있는 관절을 치료해 물리치료실을 찾는 주민이 많고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한방·양방 진료와 병행해 물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령인 섬지역 어르신들의 관절건강의 파수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80세대 대상으로 2억원 투입

김제시는 관내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0세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기구가 쾌적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자랄 수 있도록 낡고 노후된 화장실, 지붕, 찬호, 보일러, 싱크대, 도배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이다.

지난 2008년 처음 4억5천만원으로 200세대 집수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세워 70~100세대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김제시 특수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번 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와 2017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사업 추진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할 실시한 결과 95%가 만족감을 표했



며, 일부 사업비 부족과 그로 인한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최일동 여성가족장은 자체예산 사업으로 재정적 한계가 있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일부 국가유공자 등 사업대상자 자격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 등 만족도 조사 결과를 최대한 검토하여 2017년에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